

탄소 줄이기

인간에 퍼지 탄소 줄이기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온라인 서명부



내 손안의
분리배출 앱
바로가기



4월 5일은 식목일이다. 나무를 푸르게 심어도 지구는 여전히 아프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온실가스 총 배출량 8위,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5위를 기록하는 등 탄소배출량이 상당히 많은 국가다.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탄소중립, 식목일을 맞이하여 푸른 지구를 되찾기 위한 착한 여정을 함께해보자.

Q1

탄소중립이 무엇인가요?

이산화탄소의 실질적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 지구적 온실가스 흡수량과 균형을 이룰 때 탄소중립이 달성되는 것입니다.

고양에서는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고양시 탄소중립 시민실천연대가 함께 노력 하고 있습니다. 시민실천연대는 2021년 10월 고양시 242개 시민단체 회원 7,337명이 탄소중립을 목적으로 발족한 시민연대입니다. 2022년 현재 257개 단체 11,846명이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을 위해 저탄소 생활을 실천한 고양시민은 5월 말(예정)부터 인센티브 포인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역화폐 개념의 탄소중립 카드에 포인트가 적립되는 방식입니다.

Q2

자원을 재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폐건전지와 종이팩 회수에 적극 참여하세요.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폐건전지와 종이팩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폐건전지는 그냥 버려질 경우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끼칩니다. 종이팩도 수입에 의존하는 고급 천연펄프로 만들기 때문에 재활용을 위해서는 회수부터 철저히 해야 합니다. 폐건전지 20개를 모으면 새 건전지 2개로, 종이팩(1kg 기준)은 200ml(100매), 500ml(55매), 1,000ml(35매)를 모으면 갹티슈 또는 두루마리화장지로 **인근 동행정복지센터(문의: 고양시콜센터 ☎ 031-909-9000)에서 교환** 받을 수 있습니다.

Q3

폐가전제품 분리배출은 비용이 드나요?

고양시민은 폐가전제품을 ‘무상’으로 분리배출 할 수 있습니다.

대형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러닝머신, 정수기, 전자레인지 등이 해당되며 소형은 전기밥솥, 청소기, 노트북, 헤어드라이기 등이 있습니다. **배출하기 전 사전 예약신청은 필수입니다.** 콜센터 ☎ 1599-0903(평일 08:00~18:00), 홈페이지(www.15990903.or.kr)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형 가전은 5개 이상이 되어야 수거신청이 가능합니다.

Q4

재활용품과 쓰레기가 헛갈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재활용품인 척하는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버려주세요.

스티커가 붙어 있거나 음식물이 묻은 비닐, 영수증, 깨진 유리류 및 도자기류, 문구류, CD, 슬리퍼, 기저귀, 노끈 등은 재활용이 안 되니 반드시 종량제 봉투에 버려주세요.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하려면 **비우고 행구고 분리하고 섞지 않는다**를 지켜야 합니다.



비우고

일회용품에 담긴
내용물을 깨끗이
비워서 배출



행구고

음식물을 담은
일회용품은물로
헹구어서 배출



분리하고

라벨 등 다른
재질의 부착물을
분리해서 배출



섞지않는다

같은 재질의
일회용품별로
모아서 배출